

### Q3. 인격적인 순종?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하시는 배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인정하시고 존중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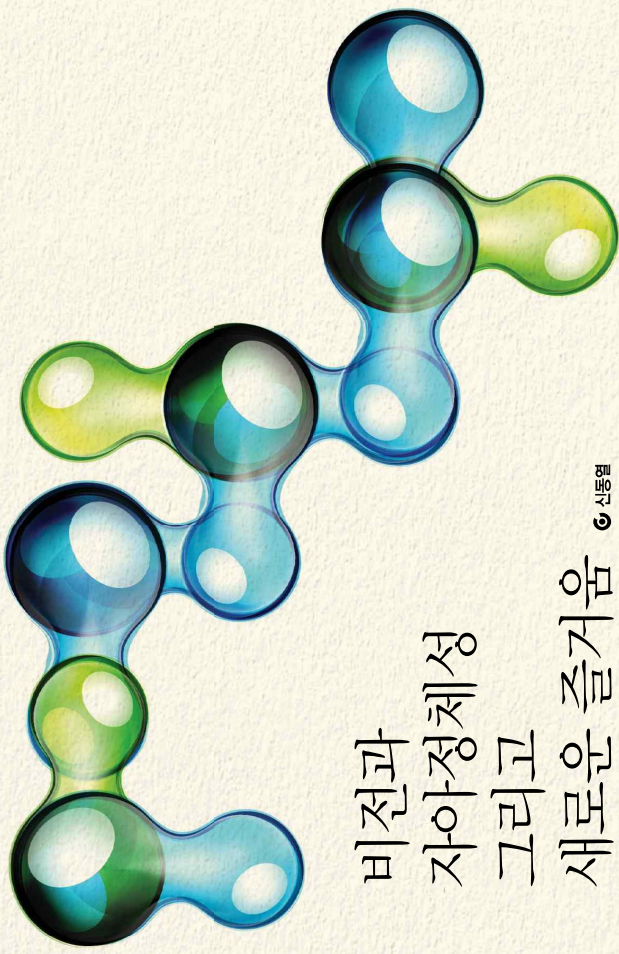
#### 선악과와 울분

선악과는 울분과 비슷합니다. 울분을 주신 것은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의의 악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지요. 울분은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줍니다. 마치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따라와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운전자는 알코올측정기에 대고 마음껏 숨을 불어넣습니다. 숨겨야 할 것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불순종 아담과 하와의 미혹된 마음에는 선악과가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이 담긴 악수의 상징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음직도 하고 보양제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라." 이처럼 타락은 인간의 감각과 이성 그리고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철학교수로 본 단계 총장위원이자 세계언어가이드 소장이다. 저서로는 '번역과 생명의 대중문화론',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포스트모더니즘', '니고데모의 인생', '이성 MP' 등이 있다.



## 비전과 자아정체성 그리고 새로운 즐거움

신동열

#### 비전교육과 진로교육의 차이

비전이라는 주제는 기독교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크리스천 청소년이나 청년들이나 청년들이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한 소망과 계획을 품는 것은 기독교교육의 필수적인 내용이다.

크리스천에게 진정한 비전이란, 이 땅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청년들을 향한 기독교교육에서는 좀더 구체적인 접근으로 어떤 직업, 일속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한다. 비전을 너무 직업으로만 접근하면 분명 다른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교육이란 점진적인 단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기독교세계관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직업 만이라도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기독교교육을 진행하는 곳에서는 비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다루어진다. 어느 교단의 청소년 공과 집필에 참여한 경험상 청소년들은 매 학년 매 학기마다 비전이라는 주제를 접하게 된다. 교회의 수련회 등에서도 비전은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이다. 기독교교육을 반영하는 학교들도 비전과목을 신설하여 학생들이 비전을 고민하게 한다. 이처럼 비전교육은 청소년들에게 필수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비전교육을 진행하는 사역자나 교사들 중에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 일단 청소년들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우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청소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교육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 이후에도 그들의 비전과 꿈이 잘 형성되지 않으며 형성된다 하더라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먼 것들을 비전

행교육 없이도 비전교육이 일반적인 진로교육을 넘어서지 못한다.

### 성경적인 자아정체성

그중에서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교육은 성경적인 자아정체성이다. 자아정체성이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스스로 나름의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자아정체성은 비전을 발견하는데 중요한 전제가 된다.

아이페드르를 처음 보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아이페드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은 아이페드르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나에 따라 그 용도가 좌우된다. 아이페드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면 그것을 라면 범비반침으로 사용하거나, 그 위에 화분을 올려 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 아이페드르는 망가진 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비전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성경적 자아정체성 교육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세상 의 영향받은 자아정체성과 성경이 말하는 자아정체성을 다루어야 한다. 먼저 세상이 주입하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 즉 성경적인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앞서 이미 학생들 안에 이미 세상의 영향으로 자리잡은 정체성을 다루어야 한다. 자신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친척히 누워되어 온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세상은 지속적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세상은 개인들을 통제하고 조절하기 쉽기 때문이다.

세상이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정체성은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사람은 물질에 불과하다는 것. 즉 개인의 행동과 즐거움은 물질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람은 결국에 혼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으로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많은 시인과 에니지를 들어 교육한 크리스천 교사들은 좌절하게 된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 일단 너무 빨리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려는 조급함이나 비전교육 시간이 지나치게 짧은 것도 원인이다. 또한 학생들과 깊은 교제 없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 단체에서 진행되는 비전교육이 겉으로는 하나님, 사명, 영광돌림, 은사 등의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나 그 속은 일반적인 진로교육이 다루는 목적과 내용, 그리고 방식을 다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전교육은 일반적인 진로교육과 분명 다른 것을 가진다.

비전교육과 진로교육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일반적인 진로교육을 살펴보자. 일반적인 진로교육은 크게 네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개인의 재능을 심리검사로 파악하고, 둘째는 그 재능에 어울리는 직업들을 소개한다. 셋째는 그 직업들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돕고, 넷째는 그 직업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간계획을 세운다. 이것이 일반적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의 내용이다.

일반적인 진로교육은 학생들의 진학과 취업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다. 어떤 학과, 대학, 분야, 직장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진로방향성을 찾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비전교육은 진로방향성을 찾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이런 일반적인 진로교육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비전교육에도 분명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 그러나 비전교육은 이런 교육 이전에 반드시 선행해야 할 교육이 있다. 그것은 자신과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선

이런 정체성에서 나오는 비전은 당연히 물질적이고 가치적인 것에 가치를 두게 된다. 공부의 목적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것에 집중된다. 또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수치이며 홀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갖추어 안전을 이루는 것을 능력으로 정의한다.

그러하여 개인은 결국에 고통 당하게 된다. 영적인 문제를 물질로 해결하려고 한다. 즉, 마음의 공허함을 감각적인 소비로 달래려고 하며 이후에 더 큰 공허함에 힘들어 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자신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속은 우울과 죽음을 생각한다. 그러다가 이웃들과 관계를 중단하고 자신의 세계에만 빠져들고 만다.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대표적 인 것은 두 가지이다. 인간은 물질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물질의 공핍도 힘들지만 영혼의 무마됨이 더욱 고통스럽다는 것이다. 몸이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마음도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한다. 둘째는 개인은 혼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며 그속에서 완전하지 않아도 사랑과 수용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존재이다.

이런 성경적 자아정체성을 갖게 되면 가치적인 물질의 비추, 즉 돈에만 삶의 목적을 두지 않는다. 돈을 많이 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영혼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면 기꺼이 그것을 포기한다. 화려한 결과도 중요하지만 기록한 과정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에 불편해 하지만 불안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허락하신 관계와 만남 속에 은혜를 받고, 배풀며 누릴 것을 소망하며 결핍 속에서도 여유를 찾고 완벽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기치를 위해서 열정을 쏟게 된다.

정체성의 발견이 비전의 내용을 결정한다.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성경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면 성경이 제시하는 거룩한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러게 된다. 그리고 세상이 제시하는 정체성 속에서 자신을 지키게 된다.

### 또 다른 즐거움

그러면 어떻게 학생들에게 성경적인 자아정체성을 인식하게 할 것인가? 무책임하게 들리겠지만, 결국에는 성경께서 역사하셔야 한다. 성령의 손길이 학생들을 만지셔서 자신들이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내면의 감각이 살아나야 한다. 그래서 기도 말고는 답이 없다.

더불어 교회에서는 새로운 즐거움을 개발해야 한다. 즐거움이라는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성경적인 정체성을 학생들이 아는 것은 그레이트한다는 당위성을 통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며 관계적인 존재로서 즐거움을 통해 경험해야 한다.

세상은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즐거움을 제공한다. 그것은 물질적인 즐거움으로 개인의 욕구와 본능에 충실할 때 생기는 즐거움이다. 성적이 오르는 것은 큰 즐거움이다. 돈을 많이 벌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그리고 그 돈으로 소비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유명해지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좋은 곳에 취업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강한 힘을 소유하여 세상을 주도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청소년들이 이런 즐거움만 듣고 보고 알고 있으니 그들의 비전이 이런 즐거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영적이며 관계적인 우리의 정체성에는 더 강력한 또다른 즐거움이 있다. 그것은 공부의 결과보다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즐거움이다.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기꺼이 돈을 포기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거룩한 가치를 위해서 사람들이 추모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도 즐거움이다.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기 위

해 미레가 보장되지 않는 곳에 뛰어드는 것도 엄청난 즐거움이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도움을 받는 것도 대단한 즐거움이다. 강한 힘이 없어도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비전이란 엄밀히 말하면 즐거움과 연결된다. 하나님의 뜻이니 고통스러워도 무조건 견어기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록한 즐거움이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 세상이 말하는 돈과 명예, 감각적인 것을 소유하는 것도 즐겁지만 세상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즐거움이 있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세계관이 입각한 비전교육의 중요 요소이다.

기독교교육의 위기는 즐거움의 위기에서 시작되었다. 교육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기록한 즐거움이 사라지면서 그 빈자리에 세상이 제시하는 즐거움이 자리잡은 것이다. 따라서 성경적인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즐거움을 개발하고 찾아줘야 한다. 청소년들은 맛있는 간식도 즐기워하지 못,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이전에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희열을 맛보기도 한다. 컴퓨터 게임도 즐 겁만, 컴퓨터 중독에 빠진 이들의 대안을 함께 찾자는 위크샵에 놀람게 몰입하고 즐기워 한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도 흥미로워하지만, 직업을 통해 이웃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에 더 기쁨을 느낀다. 우리가 섬기는 청소년들은 세상에 영향받은 아이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뛰어넘는 일에도 즐거움을 느끼는 존재들이다. 물론 이러한 기록한 즐거움과 자아정체성을 교육하

는 것은 이런 즐거움을 경험한 자들에 의해서 가능하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먼저 기록한 즐거움에 감격하고 확신이 있을 때에만 그것을 경험치 못하 이가 공급해하고 새로운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며 함 케하게 될 것이다. 비전교육을 진행하는 이들은 너무 나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곳을 안내하는 가이드의 밝 은 표정을 가져야 한다.

비전교육의 목적이 진로교육을 넘어 기독교세계관으 로 자신과 세상을 정의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 리며, 그 속에서 기록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라 면, 그 시점은 자신이 어디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지를 찾도록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 다. 그럴 때 의무감이나 비장함, 그리고 사명의 지나 친 무거움이 압도하는 비전이 아닌 하나님과 사람 속 에서 자유와 평안, 여유와 기쁨을 누리는 매혹적인 비 전을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신동열** 총신대학교 신학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였다. 전 한국기독교학생회(KF) 간사(서울교대, 인천대) 담당을 거쳐 현재 소명교육개발원 대표이자 현 수석신학교회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다. '소명'에 담한다의 저자이며, 사랑의 교회 청년부 '소명아카데미' 주강사 및 현 대한민국교회 비전과목 주강사 및 교육기획으로 활동하고 있다.



구약 / 신약

# 성인물에게서 다

## 성서 인물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 歷史가 우리 삶 속에서 역사 役事하다

**구약편 77명, 신약편 50명의 인물과 사건에 대한 깊은 통찰과 자기성찰 그리고 관련된 명화들이 주는, 읽는 즐거움과 감동!**

이 책에 기록된 '사람 숲'에 나타난 '하늘 소리'를 통하여 2천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김명용(성토호신학대학교 총장)

다양한 문학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성서 인물들의 생애를 다룬 이 책은 지성을 깨우치고, 감성을 흔들며, 영혼을 각성시켜 준다. 성서 인물들을 연구하고자 하는 분들과 성경 공부 인도자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한다. - 김준민(새생명비전교회 담임목사)



이상명(성서신학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지음  
464면 | 신·구약편 각 17,000원

호서사  
T. 333-5161 http://www.hsbooks.com